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참조11)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안광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03
----------	------

발의연월일: 2023년 3월 일

발 의 자: 안광림, 서은경, 윤혜선, 조우현,
김종환, 박주윤, 추선미, 김보미,
황금석, 이영경, 서희경, 이준배
(이상 12명)

□ 주 문

-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은 수서 ~ 광주 복선전철 실시계획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제안이유

- 지난 2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수서~광주 (수서역~모란역~경기광주역) 19.4km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음.
- 이번 국토부가 발표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성남 도촌·여수·야탑지역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온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고시되었음.
- 도촌동과 야탑3동은 6만여 명이 거주하고 2천여 개의 업체와 1만여명의 근로자들은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통체증에 지역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성남시 도촌사거리 주변 지역은 기준 일평균 12만명이 통

행하고 특히 광주·이천 방면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주민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도춘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도춘사거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향후 전철역을 신설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며, 교통 소외지역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도춘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의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실시계획 반영】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수서~광주 (수서역~모란역~경기광주역) 19.4km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성남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해 수차례 국토부에 역 신설과 함께 역사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장래 수요 등을 감안해 기본계획에 기존 모란역에서 도촌사거리로 우회해 경기광주역으로 이어지는 대안 노선 반영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가 발표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성남 도촌·여수·야탑지역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온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고시됐다.

도촌동과 야탑3동은 6만여 명이 거주하고 2천여 개의 업체와 1만여명의 근로자들은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통체증에 지역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 KTDB 통행량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도촌사거리 주변 지역은 기준 일평균 12만명이 통행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이천 방면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주민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촌사거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향후 철도역을 신설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며, 교통 소외지역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 실시계획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야탑3동, 도촌동 주민 6만여명, 2천여개 업체, 근로자 1만여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수서 ~ 광주 복선전철 실시계획 노선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수서 ~ 광주 복선전철 실시계획 노선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3. .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